

전시산업 선진화 5개년 계획

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전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4개 전시사업자단체(주최·시설·장치·용역사업자)와 학계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, 「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(안)」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. 동 계획(안)은 '12년까지 전시장 면적을 현재 16만㎡에서 27만㎡로 확장하고 국제수준의 전시회를 육성하여, 전시산업의 GDP 비중을 0.17%에서 0.25%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, 전시산업을 통한 고용도 1만 6천명에서 3만 5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 전시산업의 위상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.

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, Global Top 전시회 육성, 전시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등 3대 중점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'12년까지 KINTEX(고양), EXCO(대구)를 약 2배로 확장, BEXCO(부산)는 내년부터 확장사업을 추진한다. '12년까지 1~2개의 Global TOP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해 IT, 전자, 조선, 의료기기 등 경쟁력 있는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 가운데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시회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. 아울러, 정부 지원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전시회의 객관적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.

전시사업자들은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(안)에 전시산

업에 대한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 확보, 금융, 조세 등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, 전시사업자 물류단지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, 전시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적용 등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고, 지경부 이재훈 차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 이재훈 차관은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 전시산업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하였으나,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·홍콩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임을 언급하고 「전시산업발전법」시행(9.22)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심심하여 전시산업 선진화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.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(안)은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, 금년 말 시행될 예정이며, Global TOP 전시회의 후보 전시회 선정 및 지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.

전시산업 선진화 방안에서, 전시산업은 경제성장과 소득·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전시회는 수출진흥에 지대한 효과를 지니며 관광, 숙박 등 관련 산업발전의 계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. '07년 정부지원 무역전시회는 수출상당액 144억불, 수출계약액 38억불의 수출 진흥효과 달성했다. 또한 신기술·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산업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한다. 독일 CeBit은 신제품 출시 및 기술경진대회로 변화되었다.

세계적으로 연간 15,000여회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

며, 전시회의 대형화·전문화·통합화 추세가 지속된다. 전시규모 20,000m²이상인 국제규모 전시회는 연간 670여회 개최되며 이중 약 80%가 유럽과 북미에서 개최된다. 독일 무역거래의 60~70%가 전시회를 통해 성사되며, 미국 기업의 91%가 전시회를 가장 중요한 구매선 발굴기회로 인식된다. 세계 유명전시회는 기술흐름 및 시장동향 등과 관련한 세미나, 국제회의 등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. 세미나, 국제회의 등을 통해 신기술 및 시장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수출마케팅에 활용한다. '06 CeBit 기간 중 800여회의 신기술 및 시장동향 관련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했다.

국내 전시산업은 '91~'05년 기간 중 전시장 면적은 약 8.4배, 전시회 개최건수는 약 5배 증가하는 등 외형면에서 급성장했다. '07년 국내 전시산업은 총 10개의 전시장에서 353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, 전시회로 인한 간접매출 등을 고려시 GDP의 약 0.17%(1조4천억원)의 경제규모를 달성했다. 그러나 산업기반의 미비, 전시장간 과열경쟁 등으로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미흡하다. 국내 경제·산업 규모에 걸맞는 업종별 대표 전시회 및 국제 수준의 대형 전시회 등 Global TOP 브랜드 전시회 개최 미흡하다. 전시 전문인력의 부족, 전시회 관련 통계의 신뢰성 결여된다. '07년 국내전시회(353건) 중 참가업체, 바이어 등의 데이터를 확보한 전시회는 41건(인증 전시회)에 불과하다.

국제수준의 대형 전시장, 숙박·교통수단 및 전시장 주변 부대시설 등 전시 기본 인프라 시설 부족하다. 전시면적 2만m² 이상의 대형 전시장은 3개소(KINTEX, COEX, BEXCO)에 불과하다.

전시산업 비전은 2012년까지 세계10위권 진입이다. 목표는 전시산업의 GDP 비중(%) : (0.17)('08)→(0.25)('12), 전시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: 1만6천명('08)→3만5천명('12)이다. 중점 추진 과제 : 5개년계획 세부 추진 과제는 Global Top 전시회 육성,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, 전시산업 지원 시스템 효율화이다. 2012년까지

Global Top 전시회 1~2개 육성하며, 전시산업의 대형화, 통합화 및 전문화 제고한다. 전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확대, 국내 전시회 인증제도 내실화한다. 정책적 지원 수단 확보(세제, 금융 등)하고, 기업애로 적극 발굴 및 해결하며,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시 평가시스템 선진화한다.

(주요 국가별 전시회 지원 현황 비교)

국가명	지원규모	유관기관	지원예산	국고 지원율	세 부 내 용
독일	233회	독일연방 경제지원부 (BMWa)	3,600만\$	30%	·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료, 홍보비, 이벤트 비용 지원 · 해외전시 지원 프로그램
영국	약 9,000 업체	UK TI	3,600만\$	40%	· 임차료, 장치비의 60% · 1개국에 3회까지 참가지원
이탈 리아	149회	ICE	1,614만\$	50% 이하	· 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자료 발간비 지원
프랑스	78회 2,500업체	UBIFRANCE	건당 4만\$	30%	· 임차료, 운송비 · 장치비는 100%지원 · 실제지원은 미미함.
미국	100회	미 상무부 및 각 주정부	.	.	· 미상무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
일본	34회	JETRO	3억\$	33%	·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료, 통역비 등 · 개별 참가시 지원 없음.
중국	34회	CCPIT	365만\$	10~ 50%	·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비
홍콩	130회	HKTDC	.	50%	·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비, 홍보물 제작비 등
싱가 포르	43회	IE Singapore	.	.	· 직접 보조는 없음 · 항공임 체제비, 장치비, 임차료에 대해 이중과세 감면

